

“제2의 최승희 배출이 꿈”



최승희 여사가 창작한 한국무용을 선보이는 김영순 원장 사진=박재환 기자

최승희 제자 새터민 김영순 원장

최승희 여사(1911~1969)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무용가로 1930~1940년대에 한국 일본 중국 등 아시아는 물론 세계를 활동무대로 삼았다.

한국 현대무용의 기틀을 마련한 최승희 여사는 생전에 300여 가지의 춤을 뒀다고 한다. 이들 춤 대부분은 민족의 정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물동이춤과 화랑춤, 보살춤, 천하대장군춤, 고구려 춤 등이 그것이다. 특히 석굴암에서 힌트를 얻어 보살춤을 창작할 정도로 불심도 깊었다.

이러한 최승희 여사의 춤을 직접 사사해 제자들에게 전수하고 있는 주인공이 있다. 바로 최승희 무용교육원의 김영순 원장(76·사진)이다.

“덩기덕 쿵더러러 쿵기덕 쿵덕! 덩 덕 쿵따다 기 덩기덕 쿵따!”

무용연습소에서 김영순 원장이 갈색천을 허리에 두르고 입으로 굵거리 장단을 맞추며 사뿐사뿐 춤사위를 연출한다. 곧 이어 무용전공자들이 김 원장의 춤을 따라 춘다. 학생들의 자세를 잡아주고 지도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다.

김영순 원장이 가르치는 것은 ‘전설의 무희’로 찬사를 받은 최승희 여사가 창작한 한국무용 기본기틀. 김 원장이 북한에 있을 당시 스승이었던 최승희 여사로부터 배운 것들이다.

“최승희 선생님 춤이야말로 하나의 조각이며 그 맛과 멋은 민족의 얼이 충분히 표현되는 춤이라고 봅니다. 춤가락과 구도 변형의 다양성, 우아하고 아름다운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김영순 원장은 현재 ‘최승희 춤 발전협회 회장’ ‘최승희 무용교육원 원장’을 맡고 있다. 북한에서 1967년 최승희 여사가 숙청될 때 까지 17년 동안 함께 무대에 올랐다. 이런 까닭에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최승희 춤을 가장 잘 기억하고 있는 제자다. 김 원장은 2003년 탈북해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온 이후 ‘최승희 춤’을 전도하고 후진을 양성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김영순 원장은 “선생은 무대에 서 있지만 해도 그

자체가 예술이었다. 의상이면 의상, 조명이면 조명, 그리고 음악 등 모든 것을 안무하고 연출하는 말 그대로 종합예술을 갖춘 타고난 분이였다”고 극찬했다.

남한으로 오기 전 김영순 원장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상위 1%의 상위층으로 살다가 갑자기 정치범 수용소에서 9년을 보내는 등 굴곡진 삶을 살았다.

김영순 원장은 고향인 경북 안동을 떠나 중국 라오닝성으로 이주한 난민의 막내딸로 태어났다. 타지에서 온갖 고생을 겪은 김 원장과 가족들은 광복 후인 1945년 가을 평양에 건너와 살았다. 김 원장의 친오빠가 한국전쟁 당시 전사해 당 기록부에 ‘혁명열사’로 등록되면서 당국의 보호를 받으며 부족함을 모르고 성장기를 보냈다. 이 때 김 원장은 평양 종합예술대학에 입학해 무용을 전공했고 최승희로부터 춤을 사사했다.

평온한 삶을 살던 김영순 원장은 1970년 요덕수용소로 가게 됐다. 김 정일 당시 7번째 부인인 허 성혜 리과의 친분 때문이었다. 김 원장은 9년 동안 수감생활을 하던 중 가족 대부분을 잃었다. 이후 2003년 4남매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한 아들 1명과 함께 탈북해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건너왔다.

김영순 원장은 평탄치 않은 삶에도 불구하고 춤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다. 최승희 선생의 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게 소원이었던 김 원장은 2011년 3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사람사랑, 한국스토리텔링작가협회의 도움으로 서울 역삼동에 최승희무용교육원을 개원했다. 이곳에서 김영순 원장은 어린이 발레에서부터 성인 취미반, 최승희무용 작품반까지 직접 가르치고 있다.

남은 인생을 최승희 무용을 전수하는데 바치기로 결심한 김영순 원장은 제2의 최승희를 배출할 것을 다짐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최승희 춤으로 세계무대를 통째로 휘어잡아 예술분야에서 높은 찬사를 받을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최승희 선생의 춤을 잘 전수해 제2의 최승희가 우리나라에서 우후죽순처럼 배출될 것을 기원합니다.”



석굴암에서 힌트 얻은 작품 보살춤을 추는 최승희 여사

최승희 보살춤 재현에 교계 나섰으면

김영순 원장은 최승희 여사를 독실한 불자였다고 회고했다.

“최승희 선생은 불교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불국사를 여러 번 참배했을 뿐만 아니라 북에서는 숙청당한 이후에도 북한 지역의 여러 사찰을 돌아봤어요. 최승희 선생을 대표하는 춤으로 평가받는 보살춤은 불국사 석굴암에서 힌트를 얻은 거죠.”

최승희 여사는 ‘보살춤’으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렸다. 그는 외국서 공연을 할 때면 스스로 ‘코리아 댄서’라고 밝히고 “조선민족의 예술성은 우수하다”고 당당히 말했다. 뿐만 아니라 바라춤, 승무를 비롯해 해녀춤, 아리랑춤, 나팔수춤, 무용극 ‘사도성의 이야기’ ‘반야월곡성’ 등 100여

편에 달하는 무용극과 소품들을 남겼다.

김영순 원장은 최승희가 남긴 불교적 춤을 불교계에 알리고 싶어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불교계와의 접촉이나 교류는 없었다.

김 원장은 “최승희 선생의 춤은 알다시피 불교적 춤이 많다. 승무, 바라춤, 보살춤은 미묘하고 단조로 우면서도 정말 아름답다. 보살춤은 음악을 편곡하고 재연출만 하면 독무로든 군무로든 다 출 수 있다. 그러나 편곡하는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며 “내 자신이 생활기초보호대상자이다 보니 지원이나 관심이 없다면 혼자서는 절대 만들 수 없다. 최승희 무용이 모두에게 알려질 때까지 묵묵히 때를 기다리며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철 스님의 도상(圖像)을 통해 본 상징과 은유

송아지 등에 타고 피리 부네

기우취적동자상(騎牛吹笛童子像)



기우취적동자상(동화사 성보박물관 소장)

석가모니 부처님의 속가 성은 고타마(Gotama:瞿曇)이고, 이름은 싯달타(Siddhārtha:悉達多)이다. 고타마란 이름은 범어로 ‘최상의 소’ 또는 최고의 소라는 뜻이다. 인도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힌두교에서 가장 숭배하는 동물도 역시 소(특히 암소)이다.

인도 바라나시에 있는 갠지스강(인도말로 ‘강가’라고 발음)에 갔을 때, 주변을 편안하게 돌아다니는 소들을 본 적이 있다. 재미있는 것은 모든 소들은 주인이 있고, 아침이면 자유로이 집을 떠나 여기저기서 풀을 뜯어 먹고 다니다가 해가 지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자고 쉬는 것이다. 말을 안 듣고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는 소는 멀리 가지 못하도록 앞발을 서로 묶어 놓아 멀리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보았다.

힌두교의 브라마, 비시누, 시바의 세 신들도 모두 소와 관련이 있다. 인도에서 소고기의 도살을 금지한 것은 사실 종교적인 이유보다 기후와 생존이유에서 이다. 가뭄이 들어 비가 오지 않아, 먹을 것이 없으면, 소를 잡아먹곤 했는데, 다시 비가 내려 농지가 풍요로워도 소가 없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결국은 굶어죽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를 도살해서 먹는 것을 금지한 것이다.

불교의 영향으로 신라 법흥왕 16년(529)과 성덕왕 4년(705)·11년(711)에는 ‘하령금살생(下令禁殺生)’ 또는 ‘금살생(禁殺生)’이라 하여 왕명으로 도축을 금한 기록이 있다. 이를 보면 불교는 인간뿐만 아니라 축생들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려도경(高麗圖經)에도 일반백성들도 불교를 좋아하여 살생하지 않으므로 소를 도살하는 법이 서물다는 기록이 있다.

소는 인간에게 개처럼 가족의 역할을 한 경우도 많다. 경북 상주에는 권씨 성을 가진 농부를 위해 호랑이와 싸우다 죽은 소의 무덤이 있고, 개성에는 눈먼 고아인 주인에게 피리를 잡게 하고, 구걸을 다니며 주인을 먹여 살린 소가 살던 동네가 있어 지금도 우담동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다고 한다. 최근에도 상주에서 자신을 돌봐준 주인할머니를 그리워해서 그 무덤을 찾아 조문을 하던 소가 죽어서 마을에서 장례식을 치른 것을 본 적이 있다.

우리나라 사찰에 가면 대웅전에 주로 그려지는 그림의 양식이 있다. 바로 심우도(尋牛圖) 또는 심우도(牛圖)라고 부르는 선가(禪家)전통의 일련의 그림들이다. 마음을 상징하는 소를 그리고, 수행자가 그 마음을 찾아 수행하는 과정을 그린 일련의 그림들이다.

심우도(尋牛圖)는 본래 도교(道敎)의 팔우도

불교와 인연 깊은 소
김홍도, 이경운 등 조선 당대화가
소 타고 피리부는 심우도 그려
권상로 기우취적도는 직지사에

(八牛圖)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12세기 중엽 중국 송나라 때 곡안선사(廓菴禪師)가 2장면을 추가하여 심우도를 그려서 심우도(尋牛圖)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한다. 마음을 조복 받는 10가지의 단계를 그림으로 그려 도상화 해놓은 것이다.

10단계의 그림들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그림은 소를 타고 피리를 부는 동자의 그림이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당대의 화가들이 단원 김홍도, 나파 이경운뿐만 아니라, 근세 한국 불교의 석학인 퇴경당 권상로(退耕堂 權相老; 1879년~1965) 스님이 그린 기우취적도(騎牛吹笛圖)가 직지사 성보박물관에 남아 있을 정도이다.

동화사 성보박물관 수장고 한 칸에 숨어 있는 황동제(쇠쇠) 기우취적도를 봤을 때,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가슴을 스쳤다. 구리로 색깔을 달리해 상감기법으로 조끼를 해 입히고, 이미 사라진 피리를 부는 동자와 빨과 뒷다리의 굽과 꼬리가 없어진 소의 모습이었다.

서산 대사가 목암 스님에게 지어준 시가 생각난다.

吹笛騎牛子(취적기우자) 송아지 등에 타고 피리 불면서
東西任意歸(동서임의귀) 동서를 마음대로 다니는구나
靑原烟雨裏(청원연우리) 푸른 들, 안개 낀 비 오는 속에서
費盡幾衰衣(비진기사의) 도롱이옷 몇 번이나 헤졌는가

동화사 성보박물관장

법성계 불자 건강카드 12

파동에너지발산용 칩 내장

만고의 진리인 법성계에 파동에너지 발산용 칩을 장착하여 뇌파균형에너지가 작용되어 몸에 지니기만 하면 신체가 바르게 되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점차 건강해지며 남녀노소, 체질, 모든 사람에게 부작용 없이 도움되는 획기적 기능카드입니다.

‘법성계 불자 건강카드’는 몸에 지니고 12걸음을 걷는 순간, 바로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 ◆ 법성계공덕 + 건강기능 + 전자파유해성중화기능 + 수맥파유해중화기능
- ◆ 사용법 : 카드비닐을 개봉해야 에너지가 발생되며 1년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개봉후 카드 하단에 개봉날짜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파동에너지발산용 칩은 남녀공용으로 지갑,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만 해도 뇌기능의 핵심인 뇌파의 균형작용활성화로 인체의 좌우 균형을 잡아 소화기, 비뇨기, 순환기, 호흡기 등의 생체기능을 향상하여 불편했던 건강이 점차 개선됩니다.

(개발자 : 파동에너지발산용 칩 연구개발원 원장 김중석) • 국내 실용신안등록 2건 (제370432010호)
• 미국 의리기기등록 (제370432010호)

방문하시는 신도분들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50장이상 구입 시 사할영과 스님 법명 인쇄하여 드립니다.

총판 : 한국불교신도총연맹 (문의 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전화 : 010-3334-5121, 010-8833-1619, 070-8116-5121

사주학의 새 지평을 연 사주대학

상,하

석삼정 스님은 고대 근대 명리 사주학의 한계를 뛰어넘어 수세기만에 명리학 역사상 처음으로 100% 적중하는 명리학의 핵심인 체와 의식이본법의 원리를 정립하여 명리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명리학계의 찬사와 돌풍을 일으킨 책이다.

체와 의식 이본법으로 전생업보론, 성격독심술, 원근법 등을 사주와 이치를 소상히 기술하여 초보도 독학이 가능하다.

판매처 : 인터넷 서점 yes24, 인터넷, 교보문고 등 전국유명서점

인터넷 서점은 10% 할인 됨

의식을 변화시키고 삶을 창조하는 영불의 힘!

3쇄 동입에 감사합니다

일체가 아미타불의 화신이다

오룡골 백승(白僧)의 안심과 회망의 메시지 정목 지음 | 신국판 | 280쪽 | 14,0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서점에서 판매

영불심매 · 관불심매를 성취한 우리 시대의 원효 정목 스님이 들려주는 일심정도 영불수행법

법사 승가대학의 강사 소임을 역임한 정목 스님은 92년 전수영불 정진 중 영불심매를 얻었으며, 98년 하안거 정진 중에 관불심매를 체험했다. 한 경정회화회 이사로서 영불수행과 원효사상 보급에 앞장서 온 스님은 2004년 경남 양산 오룡골에 정토원(065-375-5944)을 설립, 다음카페 '아미타카(cafedaum.net/omitapa)'를 통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영불 수행자들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동시에 지도하고 있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신간! 선문염송 18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 전 30권중 18권 출간! 협산선사, 투자선사, 취미선사, 조과도림선사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실증(實證)의 법문 실증설
본연을 꽃피우는 일상의 함 방거사어록

031-534-3373 www.zenparadise.com